논 술 (인문계)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계몽이란 인간이 의타적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의타적 상태에 처한 인간은 남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한 상태는 그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의타적 상태는 지성의 결핍이 아니라 남의 도움 없이 지성을 사용하려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서 비롯한다. "과감히 알려고 하라!"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가 바로 계몽의 구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토록 의타적인 상태에 머물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후견인 노릇을 한다. 그러한 상태는 나태와 비겁에서 기인한다. 의타적 상태에 머무는 것은 매우 편안하다. 책이 내 대신 지적인 활동을 하고, 성직자가 내 양심을 지키고, 의사가 내 건강을 위해 식단을 짜준다면, 나는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 돈만 낼 수 있다면 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번거로운 일들을 기꺼이 떠맡을 것이다. 후견인들은 사람들이 성숙으로의 과정을 힘겨워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게 여기도록 하고서는 그들의 감독자 역을 자청한다. 후견인들은 우선 피보호인을 입 다물게 한 후 잠자코 있는 그 피보호인에게 그가 보행기 없이는 한 걸음도 감히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주지시킨다. 그러고 나서 후견인들은 피보호인이 혼자 걸으려고 시도할 때 당면하게 될 위험들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후견인들의 강조와 달리 그 위험은 실제로 크지 않다. 몇 번 넘어지고 나면 혼자 걷는 법을 끝내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실패의 사례들이 제시되면 피보호인은 겁을 먹어서 더 이상의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개인이 의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는 자신에게 거의 천성이 되어버린 의타적인 상태를 선호하게 되어 당장은 그의 지성을 정말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 동안 아무도 그에게 지성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령과 규칙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저 기계적 작용들은 의타적 상태를 영속화시키는 족쇄들이다. 누군가 그 족쇄들을 벗어던진다 하더라도 그는 단지 좁은 도랑을 겨우 건넌 데 불과하다. 그는 아직 그런 유의 움직임에 익숙하지 않다. 무능력에서 벗어나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자유 이외에 계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없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방에서 "따지지 말라"는 소리가 들린다. 장교는 "따지지 말고 그저 훈련하라"고, 세무원은 "따지지 말고 그저 세금을 내라"고, 성직자는 "따지지 말고 그저 믿으라"고 말한다. 도처에서 자유는 제한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제한이 계몽을 방해하고 어떠한 제한이 계몽을 촉진하는가? 나는 이성의 공적인 사용

고려대학교

은 언제나 자유로워야 하며 그것만이 인간들에게 계몽을 가져온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그에 반해 이성의 사적인 사용은, 계몽의 진전이 방해되지 않고도,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가령 개인이 한 사람의 학자로서 독서 대중에게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그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공 조직에서 수행되는 많은 일들은 어떤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 메커니즘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므로, 정부는 그들이 공공의 목적을 지향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그들이 공공의 목적을 망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만 복종이 있을 뿐 논란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개인은 공적 조직의 구성원이면서 세계 시민 사회와 전체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다. 그는 한 사람의 학자로서 저술을 통해 독서 대중에게 진술하기도 한다. 그 경우 그는 공적 조직원으로서 그가 맡은 책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논의를 펼칠 수 있다. 장교가 근무 중에 상관의 명령을 받고서 그 명령의 적합성이나 유용성 여부에 대해 따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일 것이다. 그는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가 학자로서 독서 대중에게 병역의 의무가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설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시민은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지 못한다. 할당된 세금에 대해 염치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징벌의 수치를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학자로서 과세의 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독서 대중에게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는 시민적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 “우리는 지금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계몽 중인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이성을 확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현재로서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있다는 명백한 조짐들을 우리는 본다. 계몽을 가로막고 의타적인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조금씩 제거되고 있다. 이 시대는 계몽 중인 시대이다.

(나)

벌린은 자유를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는 자율이 실현된 상태를 의미하고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배 없는 자유’는 벌린의 분류에 포섭되지 않는다. 지배 없는 자유는 간섭의 실재 여부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지배 없는 자유를 파악하자면 간섭의 자의성과 행위자가 처한 예속의 정도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지배 상태에 있는 행위자도 간섭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간섭한다고 반드시 지배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 받는다고 반드시 간섭 당하는 것은 아니다. 간섭과 지배는 그처럼 별개의 개념들이다.

따라서 간섭의 부재에 초점을 두는 자유와 지배의 부재에 초점을 두는 자유는 서로 다르다. ‘간섭 없는 지배’와 ‘지배 없는 간섭’이 각각 가능하다는 사실은 양자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간섭 없는 지배를 잘 보여주는 예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노예에 대해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입장에 선다. 그러나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이

고려대학교

어서 노예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수 있으며, 노예가 간사하거나 아첨에 능한 사람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주인의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노예는 주인에게 지배되면서도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

지배 없는 간섭을 잘 보여주는 예로는 선거를 통해 뽑힌 시장과 유권자인 시민들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동의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을 간섭할 수 있다. 시장의 간섭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는 강제나 선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의 간섭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들이 동의한 사안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 그 경우 시민들에 대한 시장의 간섭은 지배가 아니다. 시장은 자의적으로 시민들을 간섭할 수 없으며 시민들도 시장에게 무조건 복종할 필요가 없다.

결국 간섭 없는 자유와 지배 없는 자유는 서로 다른 이상이다. 간섭 없는 자유가 이상으로 설정될 경우 간섭을 받는 시민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시장의 간섭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간섭은 간섭 없는 자유의 이상과 상충된다. 지배 없는 자유가 이상으로 설정될 경우 간섭 받지 않는 노예라 하더라도 그는 피지배 상태에 있으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홉스의 견해에 따르면 자유란 법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이며, 전제 군주정이건 민주 공화정이건 자유의 향유라는 면에서는 서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지배 없는 간섭의 이상에 의거한다면 비판받을 수 있다. 전제 군주정에서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주의 의지에 따라야 하는 노예일 뿐이다. 그 반면 민주 공화정에서는 아무리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운 시민이다.

인간 사회에서 간섭은 늘 있기 마련이다. 자의적인 간섭은 지배와 예속의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배 없는 자유의 이상은 그러한 가능성을 축소시킬 것을 요구한다. 한편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자가 강자의 자의적인 간섭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얘들아, 너희들도 아까 보았지만, 날짐승들은 한 지도자 밑에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위풍이 당당하냐? 우리들 개구리도 한번 이런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바로 턱 밑에 쭈그리고 앉은 멍텅구리 파랑이가 또 주책없이 물었다.

"얼룩아, 지도자가 무에니?"

"지도자란 건 왕이라구두 하구 임금이라구두 하는데, 아까 본 독수리는 이를테면 새들의 지도자요 왕이요 임금이란다."

저쪽에서, 역시 파랑이에 못지않은 멍텅구리 검둥이가 바보 같은 소리로 물었다.

"얼룩아아, 왕이란 건 그렇게 막 잡아먹는 거니이? 아이구 무시라아."

얼룩이는 한번 픽 웃고 좌중을 훑어보았다. 지도자의 참뜻을 아는 것은 자기만이라는 것이 분명하였다.

고려대학교

"잘못하는 놈은 잡아먹지, 아니 잡아먹어야지."

"얼룩아아, 어떻게 하는 게 잘못하는 거니이?"

파랑이다.

"지도자의 말을 잘 안 듣고 게으른 짓만 하는 게 잘못하는 거지."

"얼룩아아, 그런 낮잠 자는 것두 잘못하는 거니이? 어쩐지 무시무시하구나아."

검둥이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새들이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 밑에 일사불란의 질서를 유지하고 단결하였는데, 만약 저마다 멋대로 날뛰는 우리 개구리 사회를 들여다본다면 무어라고 하겠느냐 말이다. 그러기에 나는 우리도 당당한 지도자를 받들고 이 무질서를 질서로 정돈하기를 제의하는 것이다."

"듣고 보니께 그렇기두 하구나아."

파랑이다. 모두들 그럴싸하게 구미가 도는 모양이었다.

"여기 반대하는 개구리는 앞발을 들어라."

발을 드는 놈은 하나도 없었다. 유독 맨 뒤에 자빠져 있던 초록이가 반쯤 머리를 들고 반박하였다.

"얼룩아, 보기두 싫다. 높은 데서 뽐내지 말구 내려와. 네나 내나 마찬가지야. 지도자구 질서구, 되지 못하게스리. 나는 이대루 자뿌라질 자유, 낮잠 잘 자유, 제멋대루 거꾸로 설 자유가 좋다."

뱃속에서는 화가 치밀었으나 눈앞에 있는 군중은 그것이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만이 다행이었다. 얼룩이는 초록의 발언을 묵살하기로 하였다. 그는 다시 한 번 따졌다.

"얘들아,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이의가 없지? 있으면 앞발을 들어라."

역시 드는 놈은 없었다.

이때 파랑이가 부스스 일어섰다.

"모두 좋은 모양이구나아. 얼룩아 그럼 니가 그 지도잔가 한 걸 하려므나아. 그리구 내가 좀 낮잠 자두 잡아먹진 말아라아, 증말이야."

이에 폭소가 터졌다. 모두들 배를 거머안고 웃어 댔다. 특히 초록이는 배를 안고 뱅뱅 돌아가면서 허리를 꺾었다.

"얼룩이는 안 된다. 저번에 검둥이한테두 씨름에 졌지 않아? 게다가 목소리두 가느다란 것이 어디 돼먹었어?"

야무지게 생긴 놈의 반박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아까 날짐승 떼가 오자 제일 먼저 물속으로 내뺀 것이 바로 얼룩이가 아냐? 그 따위 헝겊막대 같은 지도자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적어두 독수리보다 몇 배 나은 놈을 골라야 할 거 아냐?"

"옳소!"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다.

(라)

어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가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선택을 타인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의지대로 오른손 또는 왼손을 들라고 한다고 하자. 당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당신이 오른손을 들지 왼손을 들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당신 앞에 두 개의 상자가 있는데 하나는 투명하고 다른 하나는 불투명하다. 투명한 상자 안에는 일백만 원이 들어 있다. 불투명한 상자 안에는 일억 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당신은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다.

당신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능한 한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한다.

(1) 불투명한 상자 하나만을 취한다.

(2) 두 개의 상자를 모두 취한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다. '상당히 뛰어난 예측력을 지닌 어떤 존재가 당신이 할 선택을 미리 예측하고 그 예측의 내용에 따라 불투명한 상자에 일억 원을 넣어둘지 말지를 결정한다. 만약 그 존재가 당신이 (1)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그는 불투명한 상자에 일억 원을 넣는다. 만약 그 존재가 당신이 (2)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그는 불투명한 상자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Ⅰ. 제시문 (가)를 5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30점)

Ⅱ. 제시문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얼룩이'와 '초록이'의 견해를 비교하고,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하여 자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50점)

Ⅲ. 제시문 (라)의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1)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2)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의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두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추론하시오. (서술을 위주로 답안을 전개하되 수식이나 표를 사용할 수 있음.) (20점)

※ 유의 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에 제목을 쓰지 말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Ⅰ은 500자(±50자), Ⅱ는 1,000자(±100자)가 되게 할 것. Ⅲ은 제공된 답안지 내에서 자수에 제한 없이 쓸 수 있음.

고려대학교